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27.(목) 11:00 < 7.28.(금) 조간 > 배포 2023. 7. 27.(목)

정부·기업 힘 모아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풍력 중심지(허브) 도약 추진

- 주요 기업 관계자와 국내 공급망 구축 논의
- 해외 해상풍력 선도기업 국내투자와 연계한 산업생태계 강화로 수출 역량 향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앞으로 지속적 확대가 전망되는 국내외 해상풍력발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 공급망 강화를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월 27일(목) “해상풍력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우리 제품·기술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해상풍력 기술을 선도하는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 결정, 경험이 풍부한 해외 개발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업(프로젝트)에 국내 기자재 기업의 수주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최되었다. 먼저, 산업부는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풍력 중심지(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기업들도 자사의 국내 투자계획과 연계한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외 선도기업과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 사례 등도 함께 공유하였다.

천영길 실장은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공급망의 주요 역할을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우리 산업의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과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보급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380)
		담당자	사무관	이윤섭 (044-203-538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해상풍력 공급망 간담회」 개요**

□ 개요

○ **(일시/장소)** ‘23.7.27(목) 13시 30분, 한국생산성본부 401호 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주재),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등
- **(기업)** 주요 해상풍력 공급망 기업 및 기자재 수출기업

*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일렉트릭, 신라정밀, SK오션플랜트, 윈앤피, 동국S&C

- **(협회)**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논의 주제)** ①해상풍력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강화 방안 및 ②터빈·부품·기자재의 해외 수주 활성화 방안

□ 세부 일정

일정		내용	비고
13:30~13:35	(5′)	**모두 발언**	**에너지정책실장**
13:35~13:55	(20′)	**안건 발표**	
		① 해상풍력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및 수출 역량 제고 방안	재생에너지 보급과
		② 기업의 국내 투자계획 및 이와 연계한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 국내진출 해외 선도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 사례 공유	관계 기업
13:55~14:55	(60′)	**건의 사항 및 토론**	
14:55~15:00	(5′)	**마무리 발언**	